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왕상 1:1-10)

마음 열고, 찬양과 나눔

-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 585 장, 구 384 장)
- 지난 한 달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 봅시다.

9 월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입니다.

(1 주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2 주 ‘말씀으로 세우는 집이 영원하다’,

3 주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백성’, 4 주 ‘하나님이 받으시는 집’)

평안하고 안전한 가정과 공동체를 꿈꾸지 않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처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된다면, 그곳은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곳이 될 것입니다.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1. 나이 많은 다윗은 몹시 쇠약해졌습니다(1-4 절).

1) 시종들이 처녀를 구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1, 2 절)?

나이 들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다윗을 따뜻하게 하려고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특히 그의 삶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며 일약 전쟁 영웅으로 떠올랐고,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자가 된 후에는 용병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했다. 사울이 죽고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른 지파들과 7년 반 동안 내전을 치러야 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요약하셨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대상 22:8). 이처럼 거친 삶을 헤쳐 나온 용사 다윗에게도 체온조차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인생의 황혼이 찾아왔다.

2) 다윗을 시종들게 된 처녀는 누구입니까(3 절)?

수넴 여자 아비삭

아비삭의 출신지인 수넴은 나사렛에서 남서쪽으로 11km 지점에 있는 잇사갈 지파의 성읍이었다. 수넴은 비옥한 평야 지대로 미인이 많기로도 유명한 지역이었다. 수넴 여인 아비삭은 다윗과 잠자리를 같이하지는 않았으나(4 절), 사실상 후궁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뒤,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는 형 아도니야의 요구를 반역 행위로 규정하고, 그를 처형하였다(왕상 2:20-25).

나눔 1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젊은 용사가 제 한 몸 가누지 못하는 노군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던 군주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를 맞았습니다. 다윗 왕의 쇠약한 모습을 보면서 느끼고 생각한 바를 나눠봅시다.

2. 다윗의 아들 아도니야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란을 도모합니다 (5-10 절).

1) 아도니야가 왕이 되려고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5 절)?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오십 명을 준비하였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도니야의 동생인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정하신 바가 있었다(대상 22:8-10).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도 이미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목했다(왕상 1:28-30). 그러나 아도니야는 그러한 하나님의 결정에 승복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하나님의 인정과 아버지의 지지 없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왕위에 오르고자 했다. 아도니야가 군대를 모은 것은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다.

2) 아도니야는 다윗에게 어떤 아들입니까(6 절)?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아들로 용모가 심히 준수하고, 다윗이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아도니야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다. 맏형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했다가, 다말의 친오빠이자,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 보복 살해당했다. 이후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했다. 둘째 길르앗은 어린 시절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 시점에서 아도니야는 다윗의 아들 중 가장 연장자였다. 그는 용모 또한 준수했고, 다윗의 사랑도 받고 자랐으니, 스스로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인간적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는 왕이었다.

3) 아도니야가 잔치에 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10 절)?

선지자 나단, 브나야와 용사들, 자기 동생 솔로몬

아도니야가 반역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에 초대하지 않은 이들의 성격은 명확하다. 가장 먼저는 아버지 다윗이 계승자로 지목한 솔로몬이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뜻을 온전히 따를 다윗의 총복들이 그 다음 대상이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이 밋세바와 간음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목숨을 걸고 다윗의 잘못을 고할 만큼 올곧은 인물이었으며, 브나야는 압살롬의 반란 때에도 다윗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용사였다. 이처럼 바른 신앙과 올곧은 인격을 가진 이는 때로 누군가에겐 미움과 배척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나눔 2

다윗이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자, 아도니야는 자기 힘을 과시하며 왕좌를 차지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자기 뜻을 성취하기에 분주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도니야 같은 모습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

나눔 3

아도니야는 준수한 용모와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 정치가로서 좋은 재능이지만, 그는 자기 형 압살롬처럼 그 재능을 오로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과 재능의 올바른 사용법은 무엇이며, 내게 주신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서로 이야기해봅시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

삶 _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공동체 _ 주어진 재능과 은사로 서로 섬기며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자료제공: 매일성경)

